전남 다문화학생 1만2천명…매년 증가

총 학생수 6.34% 전국 최고…올해 국내 출생 93%
베트남 49% 최다…道교육청 "이중언어 교육 주력"

전남도 내 전체 학생수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다문화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남지역 총 학생수 19만425명 중 다문화학생은 1만2천236명(6.34%)으로 비율상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620명이 늘어 증가율 5.34%를 보였다.

도내 다문화학생수는 2022년 1만1천367명, 2023년 1만1천616명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74명(3.45%), 249명(4.56%) 늘어 매년 증가율이 커지는 추세다.

올해 기준 다문화학생 12만236명 중 국내 출생은 1만1천389명으로 93.08%를 차지했다. 중도 입국은 362명(2.96%), 외국인가정은 485명(3.96%)으로 집계됐다.

부모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6천77명(49.66%)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천714명(14.01%), 중국 1천695명(13.85%), 캄보디아 1천15명(8.3%) 순이었다.

지역별 다문화학생수는 여수시가 1천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 1천101명, 목포시 1천81명, 광양시 912명, 나주시 901명, 영암군 783명 등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생 1천54명, 초등학생 6천3명, 중학생 3천161명, 고등학생 1천945명이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문화 다양성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학생 강점 개발 정책학교 운영, 이중언어 디지털교재 지원, 다문화 가정 학습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해 3트랙으로 운영하며 기초학력 지도,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 이주배경 학생들이 전남의 교육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동구, 노인 일자리 참여자 13일까지 4천225명 모집

광주 동구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90개 사업, 4천225명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직역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 일자리는 60세 이상 참여도 가능하다. 공익 활동·역량 활용 사업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내년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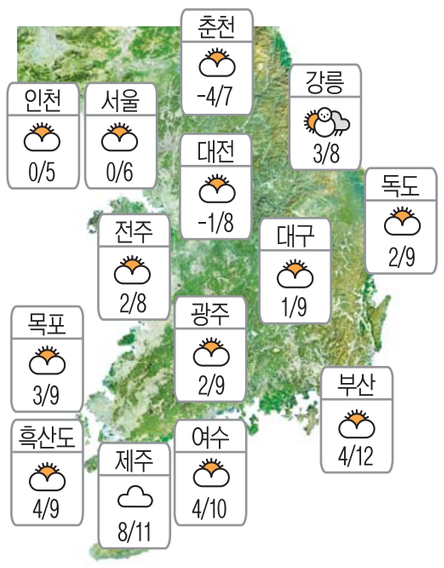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택 구청장은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을 확대했다"며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채소 무료로 나눠드려요 도시재생 네트워크 나눔 성과 공유회와 연계한 '채식의 날 나눔 행사'가 10일 광주 북구 우산동 주공3단지에서 열려 새마을회 관계자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채소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스마트팜은 유휴공간에 친환경 농법 시설을 구축한 '2024년 북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조성, 북구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7:31 해짐 17:21
달뜸 14:05 달짐 02:33



광주	구름조금	2/9
목포	구름조금	3/9
여수	구름조금	4/10
나주	구름조금	1/9
완도	구름조금	3/10
구례	구름조금	1/10
강진	구름조금	2/10
해남	구름조금	2/10
장성	구름조금	0/9
보성	구름조금	0/8
순천	구름조금	1/11
영광	구름조금	1/8
진도	구름조금	4/9
흑산도	구름조금	4/9
고흥	구름조금	1/11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40 감기 조심해요 / 빨래 70 야외건조 좋아요 / 세차 8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40 실내운동 즐겨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1.0-2.0
	먼바다(북)	1.0-2.0	1.5-3.5
	먼바다(남)	0.5-1.5	1.5-3.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동)	0.5-1.5	1.0-2.0
	먼바다(서)	0.5-1.0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10:17	03:09
	22:32	15:46
여수	05:27	11:23
	17:43	23:55
녹동	06:10	00:05
	18:23	12:33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2월 12일(목)	(-1/8)	(-3/5)	(2/9)	(1/9)	(6/10)
13일(금)	(1/7)	(-2/4)	(1/8)	(0/7)	(6/10)
14일(토)	(-1/6)	(-5/2)	(-1/7)	(-2/6)	(5/9)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市교육청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한해 결산

'1회 독서교육 우수학교' 신광중 대상 수상…학생 책출판 전시도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의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광주독서교육 우수학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각 학교가 독서교육으로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신광중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광주수창초, 진제초, 광주서광중, 금호중앙여고 등 4개 학교가, 우수상은 광주동신여중, 성덕중, 숭의중, 일동중, 조대부중, 조대여중, 광주동신고, 광주동신여고, 광주여고, 광주인성고, 금호고, 조대여고 등 12개교가 각각 수상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독서교육 우수학교 표창과 함께 총 4천만원(대상 400만원,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상금은 단위학교에서 독서교육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워크숍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11회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 책 출판 전시회가 진행됐다.

전시회에서는 광주 27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에서 발간한 126권의 전시와 책쓰기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책이 출판되는 것을 기념함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꿈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독서교육은 시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의 독서 열기가 뜨겁다"며 "내년에도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지속·확대 운영해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폭넓고 내실있는 독서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이 기자

전남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8회 연속 1등급'

심평원, 전국 92곳 평가…종합점수 98.36점 전체 평균 상회

전남대학교병원이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8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1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평가 결과 종합점수 98.36점으로 전체 평균(94.9점) 및 상급종합병원 평균(95.9점)을 웃돌았다.

9회 차에 접어든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48곳 등 전국의 92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장질환 환자의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다른 부위의 동맥 또는 정맥을 이용해 우회 혈관을 만들어주는 수술은 풍부한 경험, 체계적인 시스템 등이 뒷받침돼야만 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률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의 경우 만점을 받는 등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기수희 기자